2. 국내 경제 전망

가. 최근 국내 경제 상황

□ 지난 전망(6월) 이후 국내 경제는 선진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

— 반도체 관련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있으며 2분기중 크게 부진했던 자동차 관련 수출도 반등

— 반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(〈참고 1〉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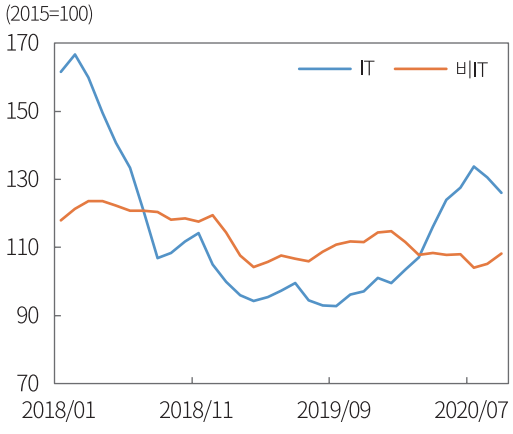
〈표 Ⅰ-1〉 경제 성장률 추이

(단위: 전기대비, %)

	2019년			2020년		
	연간	3/4	4/4	1/4	2/4	3/4
GDP 성장률	2.0	0.4	1.3	-1.3	-3.2	1.9
민간소비	1.7	0.4	0.7	-6.5	1.5	-0.1
정부소비	6.6	1.7	1.8	1.4	1.1	0.1
건설투자	-2.5	-6.4	8.0	0.5	-1.5	-7.8
설비투자	-7.5	1.7	2.6	0.2	-0.5	6.7
수 출	1.7	4.5	0.6	-1.4	-16.1	15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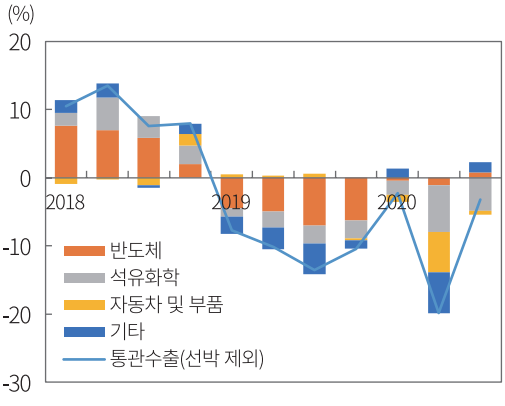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〈그림 Ⅰ-11〉 부문별 설비투자



자료: 통계청, 자본시장연구원

〈그림 Ⅰ-12〉 부문별 수출 기여도



자료: KITA, 자본시장연구원

〈참고 1〉

코로나19 기간 동안 민간소비 부진 요인 진단

□ 민간소비 증가율을 경제모형을 통해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은 소비심리 악화 및 일시적 생산성 하락에 주로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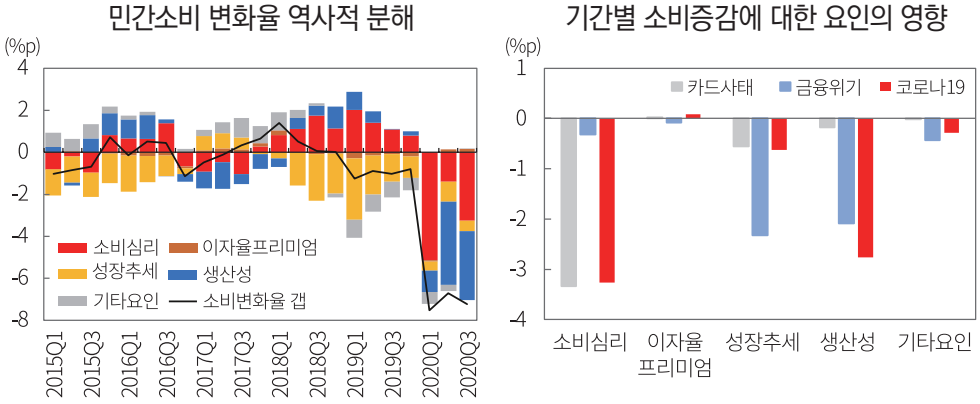
— Garcia-Cicco et al.(2010)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소비 변화율에 대한 역사적 분해를 통해 소비 부진을 요인별로 분석

— 분석 결과 금년중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예비적 저축 성향 강화로 소비심리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

— 또한,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일시적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여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된 점 또한 소비 부진을 유발

•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성장추세 둔화에 의한 소비감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

〈그림 1〉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변화율에 대한 역사적 분해



주 : 1) Garcia-Cicco et al.(2010)의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추정한 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에 대한 역사적 분해 결과
2) 단위는 추세GDP성장률과의 갭을 의미(%p)
3) 기타요인은 정부지출 및 순수출 충격을 포함
4) 카드사태(2003년 2분기-2004년 1분기), 금융위기(2008년 4분기-2009년 1분기), 로나19(2020년 1분기-2020년 3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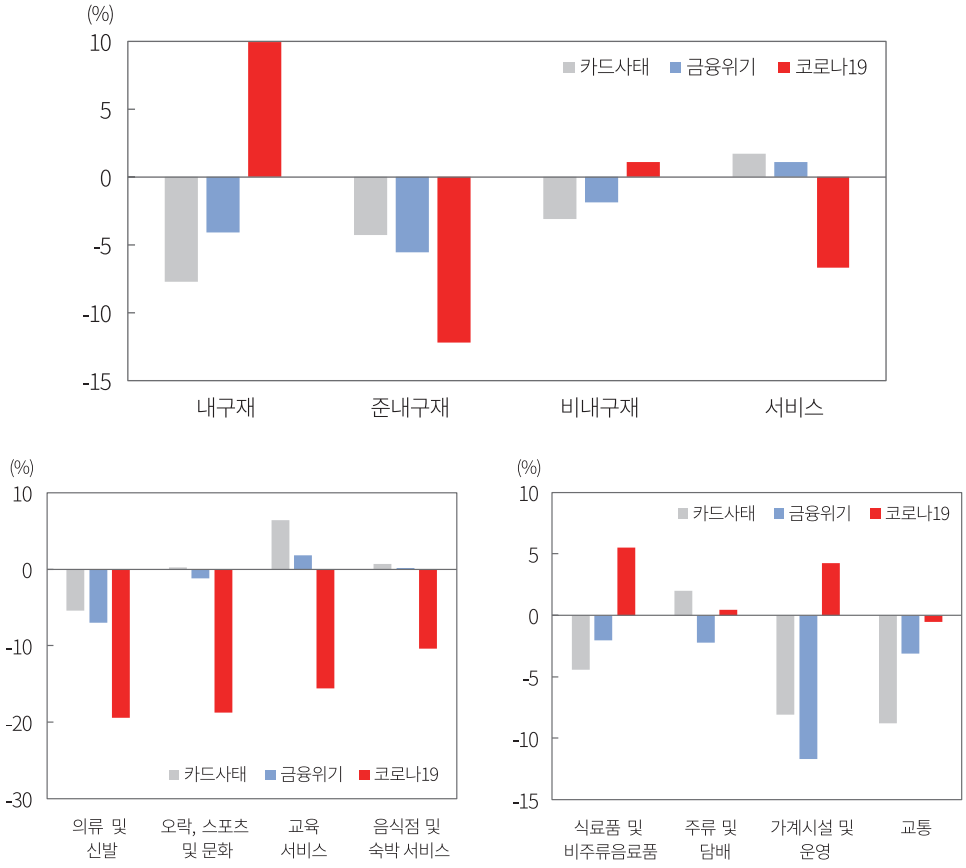
자료: 노산하(2020)

□ 부문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나 가사 관련 일부 품목의 소비는 확대

— 카드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필요한 교육, 음식 및 숙박 등의 서비스와 함께 대외활동 축소로 준내구재(의류, 신발 등)의 소비가 크게 감소

— 반면, 코로나19로 가정 내 거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태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크게 감소했던 식료품, 가구 및 가전 등의 소비가 확대

〈그림 2〉 부문별 민간소비의 영향



주 : 카드사태(2003년 2분기-2004년 1분기), 금융위기(2008년 4분기-2009년 1분기), 코로나19(2020년 1분기-2020년 2분기)

자료: 한국은행

나. 국내 성장경로 전망

□ 국내 경제는 2021년중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3% 초반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(2020년 −1.0% → 2021년 3.3%)

— 민간소비는 금년중 큰 폭으로 감소(−4.3%)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백신개발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3.2% 증가할 전망

— 설비투자(4.4%)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며, 건설투자(1.2%)는 주택건설 부진이 완화되면서 금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

— 총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세(4.8%)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— 한편, 6월 전망(2020년 −0.8%, 2021년 3.4%)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〈표 Ⅰ-2〉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

(단위: 전년동기대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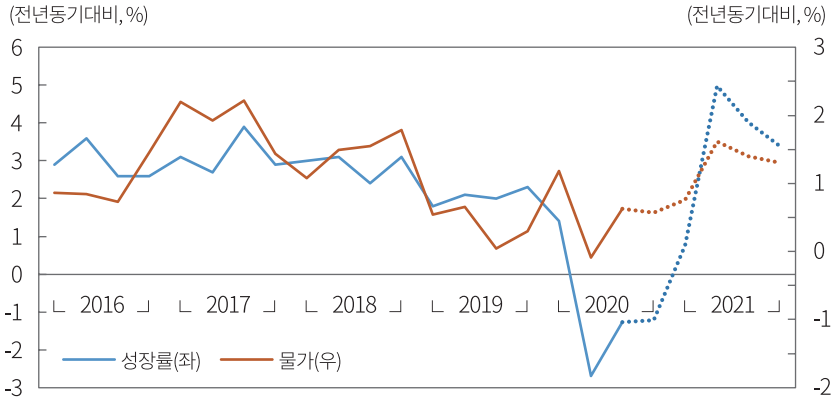
	2019년	2020년	2021년		
			상반기	하반기	연간
GDP 성장률	2.0	−1.0	3.1	3.5	3.3
민간소비	1.7	−4.3	3.5	2.9	3.2
설비투자	−7.5	6.5	4.8	4.0	4.4
건설투자	−2.5	0.2	−0.5	2.7	1.2
총수출	1.7	−4.2	4.3	5.2	4.8
총수입	−0.6	−4.2	4.2	4.5	4.4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

□ 한편, 2021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1%로 전망되어 금년(0.5%)에 이어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

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(46 $/bbl, EIA 전망)되는 데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(-) GDP갭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요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

〈그림 Ⅰ-13〉 분기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

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

다. 전망의 위험요인

□ 코로나19의 단기적 감염확산 및 백신개발 관련 불확실성 외에도 성장경로에 대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

〈표 Ⅰ-3〉 전망의 위험요인

상방 불확실성(+)	하방 위험(-)
• 주요국의 예상보다 가파른 회복세	•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간 교착상태에 따른 경기부양책 지연 또는 축소
•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	• 선진국 경기가 자국내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됨에 따라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
	• 정책지원으로 가려진 취약 부문의 지급불능 위험 확대

자료: 자본시장연구원